



전북농협, '고향사랑의 날' 맞아 기부제 홍보활동

전북농협이 지난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 대회 기념식 현장에서 진행돼, 고향사랑과 지역 상생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기념식 비전 퍼포먼스에 앞서 열린 홍보활동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최홍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이훈주 전북도연합회장,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장을 찾은 2,000여 명의 내외빈과 함께 고향사랑의 가치를 공유하며 기부제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농협은 도내 14개 시·군 주요 농산물 이미지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홍보했으며, 이를 통해 농촌 활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학교장 청렴실천 결의·서약식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승경)은 지난 5일 오전 고창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학교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다짐 결의 및 청렴 서약식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청렴한 고창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현장의 리더인 학교장들이 앞장서 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부정청탁 근절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함께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청렴 포춘꾸기 나눔 행사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2026 올봄학교 운영 설명회 개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5일, 장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올봄(ALL)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학교의 방과후·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2026년 올봄학교 운영 계획 안내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올봄학교란 교육지원청이 늘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및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소규모학교를 뜻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농업생산기반시설 정기 안전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장남저수지 등 222개소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3분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점검은 이상기후로 인한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물론,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효율을 높여 농업인의 영농편익과 안전영역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진장지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저수지 61개소 △취입보 135개소 △양수장 4개소 △대형관정 22개소 등 총 222개소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삶과 죽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 확산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 제9기 웰다잉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10월 25일까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회장 박선이)는 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7주 28시간 과정으로 '제9기 웰다잉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진행되며, 웰다잉에 관심 있는 도민 110명이 참여한다.

또한 양성과정은 각계 각층의 전문 강사 15명이 참여해 총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도민들에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도자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1주차 전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의 '꽃피는 인생수업', 한림대 양준석 교수의 '현대사회 애도 문화의 변화' △2주차 전주대 이경재 학장의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의 '전북의 비전' △3주차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의 '생명의 갈대상자', 고신대 강진구 교수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돌봄' △4주차 지금·여기 인문학당 권건일 대표의 '나는 누구인가', 전북대 의대 이호 교수의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 있다.

이어 △5주차 행복한 죽음연구소 강원남 소장의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 전 전북대 의대 채수만 교수의 '노후에 건강하게 살아남기' △6주차 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의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바른 이해', 허기식 내과원장의 '나의 죽음 준비하기', 박지원 변호사의 '상속과 증여' △7주차 김애란 강사의 '췌



GFT 바로알기', 권미량 강사의 '진격의 은퇴설계' 등 총 15개의 강의가 이어진다.

한편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에서는 웰다잉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을 지난 2017년부터 개설하여 2024년 8기까지 432명이 수료했다.

이중 9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으로 19세 이상 전북 도민의 10.7%가 작성해 전국 1위의 실적을 이루는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선이 회장은 "이번 웰다잉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확산되고, 전북 지역 사회에서 웰다잉 문화가 널리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부영1차아파트 경로당 찾아 소통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은 무더운 여름철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을 청취하며 주민과의 소통강화에 노력하면서 환영받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은 부영1차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물품 교환이 불편한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얼음정수기 노비타 업체(대표 임현택)의 후원을 신속하게 연결하며 불편을 해소하였다.

후원 업체는 지난 8월 도동동과 읍면동별을 체결하여 폭염대비 취약계층 집중 돌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업체로, 경로당 회원들과 어르신들은 무더위를 시원하게 얼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의원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이숙자 의원은 임현택 노비타 대표에 감사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불편함도 적극 경청,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통합돌봄과, 60여명 참석 소통강화 연찬

남원시 통합돌봄과는 지난 5일, 본청과 읍면동 통합돌봄과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에 대해 공유하는 교육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과 직원과 읍면동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통합돌봄과에서 추진 중인 각 팀별 주요 업무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교육 등 개선 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남원시 행정지원과와 화합행사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시 본청 행정지원과(과장 김은영) 직원과 동 직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단합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합대회에서는 '종합행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행정은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윤봉읍 아나바다 마켓 상시 운영

남원시 윤봉읍이 윤봉 휴 행복누리센터에서 무인 아나바다 마켓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무인 아나바다 마켓은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교환하고 기부·취득하는 자원 공유의 장으로, 운영 전부터 마켓 이용과 물품 나눔에 대한 읍민들의 관심이 높아 현재 활발히 이용 중이다.

기부품은 식품류를 제외한 의류, 소형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으로,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의 물품 중 아나바다 마켓 보관함에 진입이 가능한 물품이면 기부 가능하다.

기부자는 휴 행복누리센터 운영시간 내에 물품을 가져와 기부물품 목록을 작성하면 되고, 물품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물품을 가져가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지역 공간개선 사업 실천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학과장 장미선)가 지역 노인주택 2곳과 경로당 1곳에 대한 공간개선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023~24년 2년에 걸쳐 청소년 그룹홈과 노인가구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실질적 공간 개선을 수행했다.

올해는 주거환경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삼우경로당'을 비롯한 취약 노인가구 주택 2곳을 선정했다. 이들 공간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위생 취약,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이번 사업에는 학과 교수와 학부생들이 참여해 실측·조사, 공간개선안 마련, 시공 지원까지 전 과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동시에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삼우경로당은 여름방학 동안 시공이 마무리돼 입주식을 앞두고 있으며, 노인주택 한 곳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다른 한 곳은 학생들이 2학기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 총괄팀장을 맡은 정지운 학생(학부 3년)은 "올 여름 특히 무더위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생활과학계열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도 학과 동아리에 참여해 실증사업의 홍보를 맡으며 힘을 보탤다.

장미선 주거환경학과장은 "공간개선 사업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지역 현장에서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체득하는 값진 기회"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인재개발원, 제43회 지방자치단체 HRD콘테스트 장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소속 박정환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9월 4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눔홀에서 개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소통·리더십 교육과, 챗GPT·빅데이터 등 디지털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우수 사례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는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굴과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 21개 팀이 참가했으며, 서면평가를 거쳐 강의경연 분야 7개 팀, 교육과정 개발 분야 4개 팀 등 총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

박정환 주무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디지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며, 전북특별



자치도의 AI 및 과학기술 기반 행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순택 전북인재개발원장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한 혁신 행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핵심 자원"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가 익산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보건 체험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에 나섰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문화유산 돌봄사업 특성상 어려운 작업환경 속에서 일상관리와 경미수리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체험교육은 건설·제조·전기·스마트·가상·응급처치 등 6개 체험관에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실제 근로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 기계와 설비, 응급처치 상황을 직접·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안전의식을 다졌다.

남해경 센터장은 "이번 체험교육은 직원들이 안전을 다시 한번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규 채용된 신대인 행정팀원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 속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